

# 우리네 생활에 맞는 집합주거 설계

—서민아파트의 현장으로부터 본다—

Design of Collective Housing Suited  
to Korean Way of Life

—Viewed from Low-income Apartment Stes—

李奎成 /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Lee, Kyu-Sung

REPORT

60년대 초부터 도시 서민을 대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우리의 집합주거는 인간의 삶을 중요시한 건축을 외면한 채, 물량위주의 양적생산에 치중한 나머지 20~30년을 지나며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급기야 재건축·재개발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새로운 집합주거 문화의 정립과 개발을 위한 기획시리즈 “집합주거”의 2번째 차례로 「우리네 생활에 맞는 집합주거」(이규성), 「저층 고밀형 도시주택 개발방향」(안영배), 「고층 아파트 구조설계와 개선책」(이창남)을 엮는다.

■ 편집자註 ■

## I. 들어가면서

서양의 아파트가 우리의 주거생활에 도입된 시초를 1964년에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마포아파트로 볼 때 우리의 아파트문화는 3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70년대 초부터 대량으로 지어져 온 아파트가 한국인의 생활과는 잘 맞지 않는 점도 많아서 새로이 지어지는 아파트마다 약간씩의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sup>1)</sup>

그러나 아직도 아파트가 우리네 생활에 꼭 맞게 설계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특히 서민아파트의 경우는 입주하여 생활하는 서민의 생활에 대한 상세하고 종합적인 조사가 행해지지 못한 상태에서, 양적인 공급에 치우쳐 왔다고 볼 수 있다. 서민의 생활을 충분히 이해하여 거기에 맞추어 아파트를 짓기보다는, 설계자의 고정관념에 의해 설계되고 지어진 아파트에 서민이 입주하여 아파트라는 물에 입주자가 생활을 껴맞추는 역설적인 경우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本稿는 필자가 1987년 1월에서 1988년말까지에 걸쳐서 울산과 부산지방의 소형 중층(5층)아파트, 특히 주로 13평형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사항들을 소개하고자하여 쓰여진 것이다.<sup>2)</sup> 조사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점은 아파트를 설계한 설계자의 의도가 삶의 현장에서는 잘 먹혀들지 않는

점이었다. 현실의 삶에서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설계자는 정답이 없거나 誤答을 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입주자에게 주어진 “物”인 아파트와 그들의 생활 사이에는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입주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앞으로의 서민아파트 설계에서 物과 삶 사이의 충돌을 최소한으로 하는 데에 본고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며 필자나름대로의 해결책도 제시해 보았다. 물론 필자의 관찰과 이로 인해 발견되는 해결책들이 —구체적이건 추상적이건—모든 집합주거의 설계에 만병통치약으로 통용된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필자의 논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계층은, 중산층이하의 저소득층으로서, 한국인의 전통적 생활습관을 아직도 꽤 지니고 있는 계층에 한해서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인 전체로서의 집단에 대한 적합한 집합주거의 설계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적합한 주거라는 것은 특정한 집단마다 특정한 해결책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된다. 이때 특정한 집단이라는 것은 시간적(연세, 어느해), 공간적(어느지방, 어느지역)으로 정의되어야 하고 소득수준이나 생활양식이라는 요소로도 정의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II. 현장에서의 관찰

### 1. 설계에 있어서의 경직성

염포아파트단지(울산)는 1974년 주택공사에서 설계하여 시공한 단지로서, 총 세대수는 정확히 1천세대이다. 단위주거의 면적은 전부 13평형, 층수는 모두 5층이다. 배치형식은 가운데 공지를 두고 사방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소위 中庭形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아파트의 向이 동향이나 서향도 생기게 되어 있는데 동·서향 아파트의 경우에도 건물의 측면(남향)에 개구부를 내지 못하고 콘크리트로 막혀있다. 따라서 각棟의 표정은 일정한하다.

1천이라는 숫자는 —개략의 숫자가 아님—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 상당한 편의를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장실의 변기는 정확히 1천개, 부엌의 개수도 1천개, 현관의 철물도 같은 크기의 1천개, 사람이 잘 수 있는 온돌방은 2천개 등 모든 것이 1천개이거나 1천의 배수가 되기 때문이다. 주거단지의 주택의 구성은 가능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크기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교과서적 논리가 무색해진다. 입주자의 가족구성이 어떠한 것인가 등에 대한 고려는, 같은 크기의 주택 1천세대가 지어지는 계획에서는 불가능하다.

물론 하나의 변명은 13평아파트가 S형과 N형의 두가지 형태로 공급된다는 점이 될 수 있다. 주택공사의 13평형의 평면에는 두가지가 있다. 즉 주거의 앞쪽에서 진입이 되는 S형과 주거의 뒷쪽에서 진입이 되는 N형이 그것이다. 그런데, 한 단지에

있어서 어느 곳에 S형을 배치하고, 어느 곳에 N형을 배치할 것인가의 기호가 고려될 여지가 없고 主道路가 아파트의 앞에 위치할 때에는 S형을, 주도로가 아파트의 뒤에 있을 때는 N형을 배치시킨다. 진입도로의 면적을 줄이고 설계자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택공사의 13평형 아파트(연탄 아궁이 난방방식)는 7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80년대 초까지 10년이상 전국에 걸쳐 지어진 특이한 집합주거 형태이다. 서민아파트에 있어서는 주택공사의 베스트셀러였던 셈이다. 따라서 동일한 평면형태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어진 아파트라고 할 수도 있다. 대도시에서의 만성적인 주택부족에 편승하여 이 13평형 아파트가 서울·부산에서 불티나게 분양된데 반하여 울산지방에서는 70년대말과 80년대 초에 걸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울산의 야음동의 경우는 미분양이 계속됨에 따라 80년대 초에 분양아파트를 전세로 전환시켜야 되는 어려움을 맞보았다. 이러한 미분양은, 울산지방의 잠재적 입주자에 대한 소득이나 생활양식의 분석을 잘 행하지 못한데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서민용이라면 똑같은 13평형을 10년동안 꾸준히—무슨 심술이라고 해야할지—공급하는 데에서 서민아파트 설계에 있어서의 경직성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설계의 경직성은 단지전체의 배치계획에서도 보인다. 울산의 신정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단지의 중앙을 동서로 가르치르는 폐지된 도시계획도로가 있다. 원래 울산시의 도시계획에 의해 확정된 폭 25m의 大路인데 아파트건설이 끝난 뒤에 도시 계획의 변경으로 현재는 공지로 남게되었다. 단지화—一體化되도록 편입되지 못하고 아무의 땅도 아닌 땅(Noman's Land)이 되어 관광버스나 트럭등 대행차의 주차에 이용되고 밤에는 아무도 가기를 꺼려하는 어두운 장소가 되어 버렸다.

## 2. 구조물의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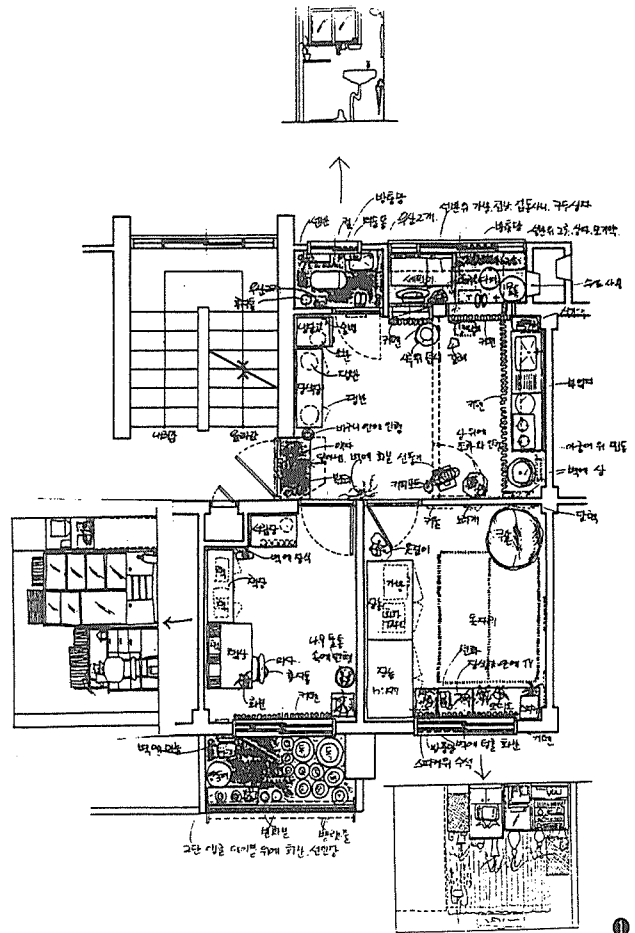
거주자는 입주후 집이 삶에 맞지 않으면 우선은 집에 적응하지만, 불편이 심하면 차차 구조물 자체를 변형시킨다. 구조물을 아예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새로운 장치를 부착하여 조금이라도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게 된다.

가장 먼저 설계자의 의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는 마루와 부엌사이의 벽체를 제거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주로 N형에서 발생한다.(그림1 참조) 마루와 부엌을 가르고 있는 블록벽체를 제거하고 동일공간으로 만드는데 마루보다 낮은 부엌의 바닥을 두구어 부엌—마루가 동일한 높이로 된다. 나무마루도 아예 들어내고 혈은 벽체에서 나온 시멘트블럭으로 채운다음 비닐 온수파이프를 깔아서 새마을 보일러로 “새로생긴 거실”을 난방한다.

간막이 벽체의 제거는 마루와 부엌을 동일공간화하여 마루를 넓게 쓰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지는데 원래 설계되었던 마루공간에 문제가

있보인다. 주택공사의 설계도에는<sup>3)</sup> 이 마루가 “L”이라는 英字略號로 표기되어 있어 소위 Living room을 염두에 둔 것 같으나 이 장소에 대해 리빙룸의 우리말 번역인 “거실”이라는 용어는 주민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마루”라고 호칭하고 있었다.

20평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에서 정착되고 있는 거실과 비교할 때 13-N형의 마루에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두우며, 좁고, 거기다가 화장실이 바로 붙어 있어서 전통주택에서의 마루나



① 13평형 시형아파트 평면도 마루—부엌 사이의 간벽을 헐고 마루를 크게 쓴다. 윗쪽의 평행점선이 원래의 벽과 문이다.

현대주택에서의 거실의 역할보다는 큰방이나 작은방의 前室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위 가족단란이 일어날 여지도 없으며 손님접대에도 적합하지 않은, 통로공간이나, 세탁기를 놓는 공간, 임시로 물건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이용된다.

벽체를 제거한 결과 공간은 넓어져서 융통성을 갖게 되므로 소위 LDK의 다목적실로 이용되어 식사나 손님접대에 잘 이용된다. 부엌쪽으로는 싱크대에 바짝붙여 커튼을 쳐서 부엌살림이 보이지 않게 하여 미관을 고려하는 집도 많았다.

다음으로 거주자가 불편을 느끼는 곳이 화장실인 것 같다. 화장실에는 용변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에 변기와 세면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용변이외의 세면이나 빨래 등의 작업에는 상당히 좁은 편이다. 따라서 세면기를 제거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 떼어낸 세면기를 화장실의 물탱크 위에 얹어 놓거나 베란다 구석 또는 외부의 베란다 밑에 버려둔다.

세면기를 떼어낸 다음 세면은 대야를 사용한다.

또한 세면기 밑에 수도꼭지를 추가로 설치하여 빨래를 할 때나 대야에 물을 받을 때 편리하게 하며, 욕조가 없으므로 샤워를 하기 위해 샤워꼭지를 설치하기도 한다.<sup>4)</sup>

S형의 경우는 화장실이 집가운데 배치되어 있어 작은 마루공간도 없게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화장실을 집의 뒷쪽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그림 2 참조) 이를 뒷편의 다용도실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배관의 변경, 벽체의 제거 등 간단하지 않은 일이지만, 화장실을 이전하여 생긴 공간을 부엌과 합쳐 넓은 마루로 이용한다. 물론 화장실을 다용도실로 옮김에 따라 출입에 문제가 생긴다. 즉 부엌을 거쳐서 화장실에 가야되므로 손님이 오거나 하면 더욱 불편해진다.

베란다를 막아서 내부공간을 확장하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다. 이 경우 베란단의 바닥을 높이는 경우도 많다. 외부공간으로 설계된 베란단에 알미늄새시를 설치하고 유리창을 달므로서 내부공간을 확장하는데, 모든 집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부터 시작되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면한棟에 설치율이 높았다. 회사의 사택으로 사용되는 주택에는 설치가 되지 않았다.

외부에서 볼 때 같은棟에 새시를 설치한 집과 설치하지 않은 집이 섞여 있어서 미관상 어색하게 보인다. 또한 새시를 설치한 집에서도, 빨래를 말리기 위해 새시 밖으로 빨랫대를 설치하여 빨래를 말리고 있어 아파트의 정면 외관은 매우 어지러운 편이었다.

기존의 베란다는 인접한 방의 바닥보다 30cm 정도 내려가 있다. 이는 방의 구들높이 때문인데, 새시를 설치한 뒤에는 베란다바닥을 방바닥과 같은 높이로 높혀 동일공간화하고 방과 베란다 사이의 창은 아예 뜯어내기도 한다.

베란다는 물을 쓰는 가사의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수도를 부엌이나 화장실에서 끌어와야 한다. 이곳이 화장실보다 넓은 뿐 아니라 밝으므로 수도를 설치하고 빨래나 세수, 머리감는 등에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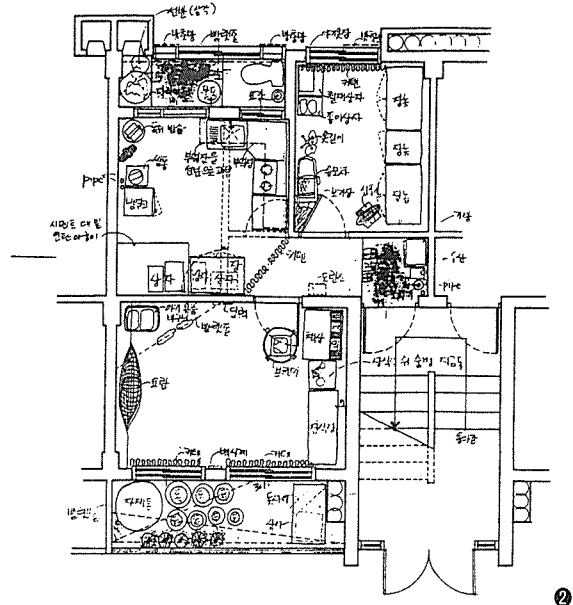
또 하나 베란다 설계자가 의도하지 않은 용도 중의 하나인데, 이 곳에 새마을 보일러가 놓이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새마을 보일러란 두장의 포개진 연탄주위에 철제물집을 만들어 바닥난방용 온수를 자연중력식 또는 전기모터식으로 순환시키고 그 위에 온수통을 놓아 일용온수도 뽑아 쓸 수 있는 획기적인 토착발명품이다. 일반서민들은 보일러라고 하면 이를 가리키나 보통의 설계자들은 기름보일러 아니면 정규연탄보일러를 말한다.

베란단에 새마을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난방은 구들이 아니고 온수용 비닐파이프에 의한 바닥난방이 되는데 이때 대개 큰방과 작은방, 마루의 전체를 하나의 존(Zone)으로 하여 베란단에 놓인 보일러에서 열의 공급이 가능하였다. 이렇게 하면 불을 피우는 장소가 한 군데로 되므로 관리상 편리하다.

공간을 연결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문짝을 제거하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다. 조사했던 단지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 부엌과 다용도실을 구분하는 미서기문짝을 떼어내서 1층베란다 밑에 버리거나 자기집의 베란단에 세워둔다. 또는 베란단에 이 문짝으로 창고를 짓기도 한다.

원래 설계시에는 부엌과 다용도실은 분리하였으나, 실제로 다용도실은 부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부엌물품이 저장되고 주부의 활동이 집중되는 곳이므로 불필요한 문을 제거한다. 떼어낸 문은 버리기도 하지만 셋집에서 사는 경우에는 주인의



- ② 13평형 S형 아파트 평면도 간벽을 헐고 화장실을 다용도실로 옮겼다. 뒷쪽의 평행점선 원래의 벽과 문이다.
- ③ 캐노피 위에 저장해 둔 물건들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버리지도 못하고 베란단에 엉겨주춤하게 세워서 보관하고 있었다.

또 하나 자주 떼어내는 문짝이 부엌문이다. 다용도실과 마찬가지로 마루도 부엌과 기능상 연결이 필요하므로 전술한대로 두 공간 사이의 벽을 헐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부엌문짝을 떼어서 공간의 연결을 긴밀히 한다. 이때에는 문틀에 커튼이나 발을 쳐서 시선을 차단하는 경우가 대체적이다. 전국적으로 10년동안 떼어낸 다용도실과 부엌문짝의 숫자는 상당할 것이다.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벽이나 문을 제거하는 반면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설계가 안된 시설들은 추가해서 부착할 수밖에 없다. 흔하게 보이는 것이 선반의 설치이다. 다용도실에는 선반을 여러층으로 만들어 잡동사니, 부엌에서 쓰는 물건이나 빈상자등을 보관하며, 현관위에도 선반을 만들고 신발, 우산등을 두고 있다. 안방의 창문쪽에 설치한 선반에는 책, 안쓰는 장난감 등을 둔다. 집이 좁은 관계로 선반을 여러곳에 설치하여 공간의 수직이용률을 높이고 있었다.

이밖에 방충망을 설치하거나, 마루를 약간 확장하거나, 더스트 슈트를 봉하는 등의 입주자에 의한 설계변경(?)도 자주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시설물의 제거, 변경 또는 부가의 내용을 볼 때 어떤 것은 대규모공사를 수반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약간의 수정만으로 가능한 것도

있었다. 개개의 변형에는 뚜렷한 원인과 의지가 담겨 있었으며 이는 개별세대에 국한된 특이한 현상으로 보이기 보다는 서민적 공통의 보편적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즉 거주자의 생활욕구가 일단은 주어진 형태에 순응하지만 장시간 건디기 어려울 경우에는 형태를 침식하는 것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건축가가 “삶”이라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주택”이라는 하드웨어가 침식되는 경향을 감지하여 서민아파트의 설계방향을 찾는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삶에 맞는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형아파트에서 상식적으로 집안에 있어야 할 물건이나 활동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원래의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불충실한 것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단순히 공적공간에 대한 불법적인 사적점용이라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생활과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허용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설계개선 방향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③

### 3. 안이 밖으로 밀려나감

소형아파트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사적물건이나 활동이 집의 내부에 한정되지 않고 공용공간의 계단참, 복도, 집밖까지 밀려나간다는 점이다. 안이 밖으로 밀려나가는 이유는 내부저장공간의 부적합성과 생활활동자체의 외부지향성에 따라 나타난다.

먼저 사용물의 경우인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이 계단참에 저장하거나 일시적으로 놓아둔 연탄, 김치통, 고무물통, 자전거, 안쓰는 가구 등이다. 법규에 의해 계단의 한쪽 폭은 내부폭이 1.2m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제법 넓은 편이다. 계단참은 2.4m×1.2m의 공간이 되어 사람이 통행하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면적이 되고 있다.

아래층보다는 윗쪽의 4.5층에서 저장하는 빈도가 잦고 저장하는 물건의 양도 많았는데, 이는 계단실의 윗쪽으로 갈 수록 한길과 멀어지기 때문이다.

건물현관의 캐노피 위에도 물건이 잔뜩 저장되어 있는데 저장물은 대개 가스통, 장독, 빈독, 폐기된 세면대, 고무물통, 자전거등이었다. (그림3 참조)

LP가스통의 경우는 캐노피위에 저장하거나 1층의 쓰레기를 모으는 구조물 위에 놓아서 황색호스를 통하여 집의 부엌까지 연결한다. 또 한가지 방법은 집뒤편의 벽의 공중에 철제바구니를 부착시켜 그 속에 가스통을 넣어서 쓰고 있었다. 이것은 외관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풍우에 가스통이 노출되고 있어 용기의 수명을 단축시키기도 한다.

김장독과 장독이 집밖에 나와 있는 것도 자주 보인다. 한국인의 식생활상 꼭 필요한 김장과 장종류의 저장공간을 고려하지 않거나, 저장장소가 있더라도 협소하거나 부적합하여 문제가 생긴다. 건물뒤쪽의 응달진 화단에는 김치독을 묻어두거나 빈김치독을 세워 놓았으며 건물 앞쪽의 양달에는 장단지들을 놓아두는 경우가 있었다.

1층베란다 밑을 여러칸으로 나누어 연탄창고를 설치한 염포아파트의 경우는 빈 공간을 사용하여 물건을 저장하되 활동상, 미관상 적절하게 해결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건물의 현관부분에는 옥외의 담소나 휴식에 이용하기 위한 돗자리나 平床이 세워져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안의 물건이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실내 저장공간을 줄이므로써 집내부의 순수생활공간을 넓히려는데 있다.

다음은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활동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현관문 밖 계단실에서 자리를 깔고 채소를 다듬거나 김장을 쌓아놓고 다듬는 행위를 볼 수 있었고, 현관 내·외부 근처에서 돗자리를 펴놓고 이웃과 담소하거나 뜨개질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염포아파트에는 빨래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빨래를 하면서 이웃과 담소하는 장소로 잘 이용되고 있었다.

소형아파트에서 상식적으로 집안에 있어야 할 물건이나 활동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원래의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불충실한 것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단순히 공적공간에 대한 불법적인 사적점용이라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생활과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허용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설계개선 방향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Ⅲ. 끝맺으면서

관찰했던 단지들의 가구의 일반특성을 보면, 공단관련 기능직사원이 많았으며 인생의 주기상 자녀가 국민학교 저학년 이하에 속하는 신혼기, 확대기가 주였고 부산지역은 대학생까지 있는 안정기가 많았다.

소형아파트의 실용가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즉,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다지 불편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희망가치를 보면 좀더 큰 15~17평의 주택을 원하고 있었고 그 이유는 자녀의 성장에 따른 공간의 수요증대였다.

실용가치나 희망가치 못지않게 “체면가치”도 존재하고 있었다. 즉, 지금 13평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므로 여유가 있을 때는 꼭 방 4개 정도가 있는 아파트로 옮기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집이란 넓으면 좋겠지만

소득계층상, 인생주기상의 필요에 의해 소형주거의 수요는 적지않다. 흔히 경제발전에 따라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주거수준을 높혀야 한다고 하지만, 단순한 면적증가보다는 질적향상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최소공간을 최대이용하는 설계가 있어야 한다. 흔히 건축을 “공간”의 설계라 부르지만 아파트는 면적으로 거래되고 평면설계에 머무르고 있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주자들 스스로 제한된 면적의 타개책으로 공간을 치밀하게 사용하고 있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수직적 공간활용을 예측하여 입체설계를 할 수 있다. 특히 공간의 상부, 모서리공간의 이용과 다용도실, 화장실과 같은 활동집중부위에 대한 치밀한 설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저장물의 용도, 장소분류에 의한 저장공간의 최소한의 설치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밖으로 밀려나감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며, 현관앞, 계단참, 캐노피 상부, 화단 등을 텅빈 채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치밀한 설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요면적을 집안에서 잡는 대신 집밖의 공용시설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주거란 공동시설을 가능한한 많게 해서 경제적, 사회적 잇점을 얻자는 것이나, 현재는 격벽구조의 단독주거의 단순한 모음에 불과하다. 중·대형 아파트에서는 모든 시설을 집안에 갖추어야겠지만 소형에서는 가능한 공용시설을 집밖으로 뽑아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좁은 집에 손님을 맞이하기 어려우므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수직적 공간활용을 예측하여 입체설계를 할 수 있다. 특히 공간의 상부, 모서리공간의 이용과 다용도실, 화장실과 같은 활동집중부위에 대한 치밀한 설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저장물의 용도, 장소분류에 의한 저장공간의 최소한의 설치가 필요한 것이다.**

“공동손님방”을 각 동당 몇개 설치하거나, 뚝잔치나 집들이 같이 손님을 치를 때 쓰기 위해 20명정도 들어가는 주방이 달린 “공동잔치방”을 마련한다. 공동빨래터(염포에 있음), 공동김치광, 공동장독대, 공동차고(염포의 연탄창고와 같은) 및 공동옥외거실(현관앞에 平床을 설치하여 가능)등을 설치하여 준다면 집안의 면적은 소형화되면서 공동생활은 풍요롭게 될 것이다.

서민용 소형아파트는 지금까지 설계의 사각지대였다고도 할 수 있다. 건축에 종사하는 설계자, 연구자의 관심과 분발이 요청되는 분야라고 하겠다.

註)

- 1) 이러한 수정에 있어 특기사항 중의 하나는 거실까지 파이프온돌로 하여 바닥난방을 하는 점으로 한국인의 생활습관이 반영된 좋은 예라고 하겠다. 1974년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반포 아파트는 全室을 라디에이터로 난방하도록 설계되었다.
- 2) 본고에 나타나지 않는 제반수치나 입주자의 직접적인 언급 등에 관하여는 필자와 공동연구자가 발표한 다음 논문을 참고하기 바람.  
-이희봉, 이규성, 우동주, 「한국인의 생활양식에 맞는 주거형태 설계를 위한 현장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7권2호 통권34호 1991년 4월.
- 3)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총람 1971-1977」, 「1978-80」
- 4) 아파트의 화장실설계의 무성격함과 생활습관과의 충돌에 대해서는 이를 통렬히 비판하는 논문이 있다.  
-이희봉, “우리에 생활양식과 저네의 주거형태” 「주택」제47호, 대한주택공사, 1086년

## ■ 바로잡습니다 ■

다음으로, 공동 주거란 공용시설을 가능하면 많게 해서 경제적, 사회적 잇점을 얻자는 것이라 생각되나 현재는 격벽구조의 단독주거의 단순한 모음에 불과하다. 중대형에서는 모든 시설을 집안에 갖추어야겠지만 소형에서는 가능한 공용시설을 집 밖 단지로 뽑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단칸방에 손님이 와서 머무르게 될 때 좁음이 심히 느껴지는 바 “공동손님 방”을 각 동당 몇 개정도 설치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칸방이라도 뚝잔치나 집들이 같이 “손님 치를 때” 좁음이 심화되므로 20명 정도 들어가는 주방달린 “공동 잔치방”을 마련 한다면, “공동 빨래터”를 만들어 주고 [염포에서 시행], “공동 김치광” “공동 장독대” [뜰안에 설치] “공동 차고” [염포에 설치] 등을, “공동 옥외 거실”을 [현관 앞 평상에서 가능] 설치해 준다면 집안의 면적은 소형화되면서 공동생활은 풍요롭게 될 것이다(그림 2).

### 6) 인간 체험중심의 규모로

인구 5만 이상이나 되는 대규모 신단지가 되면, 거대하고 획일적인 외부환경 속에서 인간은 체험상 왜소하

本 기획시리즈 첫회(본지 9109호)에 게재되었던 李熙奉교수의 “인간중심의 집합주거단지 개발방향”의 일부 내용이 제작과정상의 착오로 인하여 그 순서가 뒤바뀌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내용상의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며 평소 「건축사」지를 성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과 독자계위, 특히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필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게 느끼며 압도되게 된다. 또한 반복되는 物的環境 속에서 자기위치를 못찾게 되면 좌절감에 싸이게 된다.

목동 단지를 찾아가는 사람은 신기한 미로에 들어간 것 같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된다. 그 이유는 계획원안에서부터 잘못 설계된 허리부분이 차단되어 남북 단지가 분단되어 있는 것이 그 하나이고, 또 중심축 주변으로 일방통행식 순환교통방식이 그 원인이다. 차량의 일방통행식 도로는 얼핏 고속이동이 가능하여 기능적으로 보이지만, 통상 인간체험과 반대된다. 가려는 지점을 지나쳤을 때, 반대방향으로 갈수 없다는 이유로 혼란이 수반된다. 현재 역방향으로 진입하거나(모르고는 물론 알고도) 일방통행 도로를 쫓게어 양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대단지가 인간적이 되려면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이 되어야 하고, 건장한 청장년 중심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를 더 받는 노인, 어린이 중심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상계나 울산 단지에서 노인들이 단지 내 터밭을 가꾸어 수확물을 나눠먹고, 성취감을 얻는 것도 인간성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고, 아파트 외부공

간을 아스팔트길과 무의미한 잔디밭으로 덮는 것을 일부 상치, 오이를 가꾸는 밭으로 계획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된다.

어린이 놀이터도 주택건설촉진법규정에 의해 동귀 통이에 형식적으로 설치하거나 중앙집중형 놀이터를 만들것이 아니라, 상계에서와 같이 내다보고 소리질러 서로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대규모의 살벌한 물적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살아가는 기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를 가능하면 소규모로 축소하여 계획하고 인간체험 중심으로, 그 중 노약자 중심으로 계획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4. 結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인간이 정말로 중심이 되는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物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수량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형태미나 자본중심에서 생활의 의미 중심으로, 서구화된 이상 중심에서 한국적 현실 중심으로.